

주임신부: 김대하 (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 (사도 요한)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성탄 시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마태오 1, 20)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주 (수) 11: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3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3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야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12/28(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본당 11:00, 공소 17:30)
- ▶ 12/30(화) 성탄 팔일 축제 제 6일 (본당 20:00), 성령 안수
- ▶ 12/31(수) 성탄 팔일 축제 제 7일 (본당 11:00)
- ▶ 26' 1/1(목)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본당 11:00)
- ▶ 26' 1/3(토) 성모 신심 미사 (본당 11:00)
- ▶ 26' 1/4(일) 주님 공현 대축일 (본당 11:00, 공소 17:30)

◎성탄 구유 예물 봉헌

구유예물 \$1690은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남수단 후원회(정윤모 헤르베르트, 토론토 한맘 성당)에 봉헌됩니다.

◎2026 현금 봉투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영문 이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투 번호는 재정부 관리용입니다. 작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하태성 베드로

◎사목 총회 12/29(월) 친교실

◎판공성사표

판공성사를 하신 신자분들은 반드시 판공성사표를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소식

◎은빛 모임

26' 1/4(일) 주제: 실전 전화기 통역 앱 사용하기

◎본당 울뜨레야 26' 1/8(목) 미사 후 친교실

◎2026년 캐나다 한인 꾸르실리스따 쇄신 피정

- 일시: 2026년 2/6(금) 오후 5시 – 2/8(일) 오후 3시
- 장소: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 주제: 만남
- 참가비: \$320
- 신청 마감: 2026년 1월 25일. 신청서는 복도 테이블
- 문의 및 접수: 간사 박혜영 수산나

구역 모임 소식

- 1 구역
- 2 구역 26' 1/10(토) 친교실 11:00
- 3 구역
- 4 구역 26' 1/18(일) 친교실 13:00
- 5 구역 26' 1/10(토) 김지현 아네스 17:00
- 6 구역 26' 1/17(토) 민중환 스템파노 17:00
- 7 구역 26' 1/10(토) 박신준 비오 17:00

공소 소식

- ◎12/31(수) 오후 7시 송년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후 친교식사
(신부님 - 사제 서품 기념/영명축일)
- ◎1월 세례 축일자 1/5 에밀리아나 (송인순)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57 명)			
주일현금	\$1555	교무금	\$190
감사현금	\$0	성전건립	\$885

감사합니다.

성전건립 도네이션 – 성모회 \$1000
성가대 도네이션 – 강영희 스콜라스티카
24 일 현금: \$720 + 감사현금 \$300(류 로사 자매님)
25 일 현금: \$2180

◎1월 축일자 (15 명)

- 1/1 마리아(황기영, 신낙홍, 현혜경)
- 1/5 시메온(한기종)
- 1/17 안토니오(권이용)
- 1/19 비아(임연신)
- 1/20 세바스찬(신용우), 세바스티아노(김창욱)
 파비아노(이준환)
- 1/21 아네스(이유진, 김지현, 이미란, 권민지)
- 1/25 바오로(이종수)
- 1/27 안젤라(이소정)

친교식사 ※ 테이크 아웃용 종이백/비닐은 각자 준비

12/28: - 1/4: 3 구역 1/11: 2 구역

2025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삼종 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28	박규혜 카타리나	이지민 이사벨라 최아현 베로니카	1 독서: 이준환 파비아노 2 독서: 김규리 라파엘라	유세진 라파엘 이준규 안드레아
1/ 4	박혜영 수산나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환 파비아노 최아현 베로니카 이지민 이사벨라	1 독서: 김한욱 애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이은영 힐데가르트 하유선 라파엘라
1/ 11	감성수 베드로	최다인 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이인선 점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한욱 애릭 채정희 올리비아

믿고 순종하는 이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한인규 세례자 요한 신부
월평성당 주임

이번 주는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 제4주일은 다윗 가문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려 오시는 구세주가 누구이신지를 알려 주며 또한 구세주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아하즈왕과 요셉에 관한 사건들을 들려주면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시기에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하고, 오로지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남유다의 아하즈왕의 경우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이사 7,9)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손수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표징까지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으로 가득 차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던 아하즈는 오늘 독서에서처럼 하느님의 표징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아하즈는 도무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존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다윗 가문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기로 생각을 굳혔지만, 꿈에서 주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에서 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율법 자체에 얹매이지 않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에게도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마태 1,19) 그리고 결국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것에만 매달리던 아하즈는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나라를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지만,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고 순종했던 요셉은 영원한 해방과 생명 자체이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우리도 곧 다가올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느님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계산만을 믿고 있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희망을 걸고 성모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참된 그리스도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025. 12. 28.)

제 1 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화답송 시편 128(127), 1-2.3.4-5(◎ 1)



후렴. 행복 하여 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럴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15.19-23